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1주	한국 수출, CPI, 미국 ISM 제조업, 고용보고서 ① 한국 8월 수출/입(1일) 7월 수출 YoY 62.9%, 수입 YoY 26.5% ② 미국 8월 ISM 제조업(1일) 7월 ISM 제조업 PMI 55.6 ③ 한국 8월 소비자물가지수(2일) 7월 CPI YoY 2.8% MoM -0.2% ④ 미국 8월 고용보고서(4일) 7월 비농업고용 -2.3만, 실업률 4.1%	9월 주간 경제지표 주간 원유재고 [EIA(에너지정보청)] 주간 주택융자신청자수 [MBA]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노동부] 월간 원유시장보고서 [EIA(에너지정보청)] 30년물 고정모기지금리 [프레디맥] 미 연준 대차대조표 보고 [FED] 주간 원유 채굴장비수 [베이크어휴즈] 어닝 인사이드(팩트셋) KB 주택시장동향 [KB국민은행]	1 한국 수출입 ① 한국 8월 수출/입 YoY 8월 무역수지 ② 미국 8월 ADP 고용 변화 7월 제조업 수주 MoM 7월(최종) 내구재 주문 MoM ③ 미국 ISM 서비스업 지수 7월(최종) S&P 글로벌 제조업 PMI ④ 미국 8월 고용보고서(4일) 7월 비농업고용 -2.3만, 실업률 4.1%	2 미국 ADP 고용 변화 ① 한국 8월 수출/입 YoY 8월 무역수지 ② 미국 8월 ADP 고용 변화 7월 제조업 수주 MoM 7월(최종) 내구재 주문 MoM ③ 미국 ISM 서비스업 지수 7월(최종) S&P 글로벌 제조업 PMI ④ 미국 8월 고용보고서(4일) 7월 비농업고용 -2.3만, 실업률 4.1%	3 미국 ISM 서비스업 지수 ① 한국 8월 수출/입 YoY 8월 무역수지 ② 미국 8월 ADP 고용 변화 7월 제조업 수주 MoM 7월(최종) 내구재 주문 MoM ③ 미국 ISM 서비스업 지수 7월(최종) S&P 글로벌 제조업 PMI ④ 미국 8월 고용보고서(4일) 7월 비농업고용 -2.3만, 실업률 4.1%	4 미국 고용보고서 ① 한국 8월 수출/입 YoY 8월 무역수지 ② 미국 8월 ADP 고용 변화 7월 제조업 수주 MoM 7월(최종) 내구재 주문 MoM ③ 미국 ISM 서비스업 지수 7월(최종) S&P 글로벌 제조업 PMI ④ 미국 8월 고용보고서(4일) 7월 비농업고용 -2.3만, 실업률 4.1%	5 9월 전망 하이퍼스케일러의 CapEx, 한국중시 수급 왜곡, 연준 금리인상 우려 등 급락 유발 소재들의 부담은 완화. 그러나 고금리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시장의 상승 흐름을 제한. 실적 전망치의 상향 조정 흐름도 정체가 시작. 그러나 높아진 금리 레벨과 현 수준의 이익 수준 하에서도 언더밸류 상태인 만큼 회복 시도는 연장될 것으로 기대. 다행히 미 정부의 금리 통제 의지도 가시화되고 있어 점진적 회복 흐름 기대. 반도체와 주주환원 수혜주를 중심으로 대응하되, 7,000 pt 이상에서는 금융섹터 활용도가 높아질 듯
2주	6 ECB 금리 결정, 미국 CPI, PPI ① ECB 통화정책회의(9~10일) 7월 회의에서 기준금리 동결 결정 ② 한국 수출·음선 동시만기일(10일) 파생상품 만기일 변동성 유의 ③ 미국 8월 생산자물가지수(10일) 7월 PPI YoY 4.7% MoM 0.0% ④ 미국 8월 소비자물가지수(11일) 7월 CPI YoY 3.4% MoM 0.1%	7 미국 노동절 휴장 ① 한국 8월 수출/입 YoY 8월 무역수지 ② 미국 8월 ADP 고용 변화 7월 제조업 수주 MoM 7월(최종) 내구재 주문 MoM ③ 미국 ISM 서비스업 지수 7월(최종) S&P 글로벌 제조업 PMI ④ 미국 8월 고용보고서(4일) 7월 비농업고용 -2.3만, 실업률 4.1%	8 오라클 실적 ① 한국 8월 수출/입 YoY 8월 무역수지 ② 미국 8월 ADP 고용 변화 7월 제조업 수주 MoM 7월(최종) 내구재 주문 MoM ③ 미국 ISM 서비스업 지수 7월(최종) S&P 글로벌 제조업 PMI ④ 미국 8월 고용보고서(4일) 7월 비농업고용 -2.3만, 실업률 4.1%	9 아이폰18 공개 예정 ① 한국 8월 수출/입 YoY 8월 무역수지 ② 미국 8월 ADP 고용 변화 7월 제조업 수주 MoM 7월(최종) 내구재 주문 MoM ③ 미국 ISM 서비스업 지수 7월(최종) S&P 글로벌 제조업 PMI ④ 미국 8월 고용보고서(4일) 7월 비농업고용 -2.3만, 실업률 4.1%	10 ECB 금리 결정 ① 한국 8월 수출/입 YoY 8월 무역수지 ② 미국 8월 ADP 고용 변화 7월 제조업 수주 MoM 7월(최종) 내구재 주문 MoM ③ 미국 ISM 서비스업 지수 7월(최종) S&P 글로벌 제조업 PMI ④ 미국 8월 고용보고서(4일) 7월 비농업고용 -2.3만, 실업률 4.1%	11 미국 CPI ① 한국 8월 수출/입 YoY 8월 무역수지 ② 미국 8월 ADP 고용 변화 7월 제조업 수주 MoM 7월(최종) 내구재 주문 MoM ③ 미국 ISM 서비스업 지수 7월(최종) S&P 글로벌 제조업 PMI ④ 미국 8월 고용보고서(4일) 7월 비농업고용 -2.3만, 실업률 4.1%	12 미국 물가지표 발표 미국 7월 CPI yoy 3.4% 기록, 예상치(3.4%) 부합 및 이전치(3.5%) 하회. 근원 CPI yoy 2.5% 기록, 예상치(2.5%) 부합 및 이전치(2.6%) 하회. 미국 7월 PPI yoy +4.7% 기록, 예상치(+4.9%)·이전치(+5.5%) 하회. 물가지표가 안정적으로 발표되며 일단 부담은 완화된 상황. 그러나 7월 이후 미·이란 갈등이 격화되고 중동이 안락되는 등 중동 분쟁 불확실성이 확대. 국제유가, 한국채굴기가 다시금 레벨을 높이며 증시에 부담을 주고 있어 향후 발표될 물가지표에 유의할 필요
3주	13 미국 소매판매, FOMC, BOJ 금리 결정 ① 중국 8월 실물지표(15일) 7월 광공업생산 YoY 4.5%, 소매판매 YoY 0.6% ② 미국 8월 소매판매(16일) 7월 소매판매 MoM -0.6% ③ FOMC(15~16일) 7월 FOMC에서 기준금리 동결 결정 ④ BOJ 금융정책위원회(17~18일) 7월 금정위에서 기준금리 동결 결정	14 7월(최종) 광공업생산 MoM ① 한국 8월 수출/입 YoY 8월 무역수지 ② 미국 8월 ADP 고용 변화 7월 제조업 수주 MoM 7월(최종) 내구재 주문 MoM ③ 미국 ISM 서비스업 지수 7월(최종) S&P 글로벌 제조업 PMI ④ 미국 8월 고용보고서(4일) 7월 비농업고용 -2.3만, 실업률 4.1%	15 중국 실물지표 ① 한국 8월 수출/입 YoY 8월 무역수지 ② 미국 8월 ADP 고용 변화 7월 제조업 수주 MoM 7월(최종) 내구재 주문 MoM ③ 미국 ISM 서비스업 지수 7월(최종) S&P 글로벌 제조업 PMI ④ 미국 8월 고용보고서(4일) 7월 비농업고용 -2.3만, 실업률 4.1%	16 미국 소매판매 ① 한국 8월 수출/입 YoY 8월 무역수지 ② 미국 8월 ADP 고용 변화 7월 제조업 수주 MoM 7월(최종) 내구재 주문 MoM ③ 미국 ISM 서비스업 지수 7월(최종) S&P 글로벌 제조업 PMI ④ 미국 8월 고용보고서(4일) 7월 비농업고용 -2.3만, 실업률 4.1%	17 FOMC 금리 결정(17일 3시) ① 한국 8월 수출/입 YoY 8월 무역수지 ② 미국 8월 ADP 고용 변화 7월 제조업 수주 MoM 7월(최종) 내구재 주문 MoM ③ 미국 ISM 서비스업 지수 7월(최종) S&P 글로벌 제조업 PMI ④ 미국 8월 고용보고서(4일) 7월 비농업고용 -2.3만, 실업률 4.1%	18 BOJ 금리 결정 ① 한국 8월 수출/입 YoY 8월 무역수지 ② 미국 8월 ADP 고용 변화 7월 제조업 수주 MoM 7월(최종) 내구재 주문 MoM ③ 미국 ISM 서비스업 지수 7월(최종) S&P 글로벌 제조업 PMI ④ 미국 8월 고용보고서(4일) 7월 비농업고용 -2.3만, 실업률 4.1%	19 FOMC 7월 FOMC에서 기준금리 5회 연속 동결 결정(3.50~3.75%). 2016년 9월 이후 처음으로 소수의견 3인(25bp 인상, 베스 해맥, 닐 카시카리, 로리 로진)이 기록되며 인플레이션 및 정책 판단에 상당한 이견이 존재했던 회의. 위시는 2% 물가 목표에 대해 강력한 입장을 나타냈으나 추가 인상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시그널과 방법론을 제시하지 않음. 한편 고용, 소매판매 등 경기 지표들이 쇼크를 기록, 물가는 안정적으로 발표. 현재 9월 금리 동결 확률이 인상 확률 상회하는 상황
4주	20 마이크로 실적, 일본 휴장, 한국 휴장 ① 마이크로 실적 발표(현지시간 22일) 컨센서스 매출 509.9억달러, EPS 31.54달러 ② 일본증시 휴장(21~23일) 연휴 전 거래대금 감소 및 수급 공백 유의 ③ 한국증시 휴장(24~25일) 연휴 전 거래대금 감소 및 수급 공백 유의 ④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25일) 심리지수 둔화 및 기대인플레이션 상승 주의	21 일본 경로의 날 휴장 ① 한국 8월 수출/입 YoY 8월 무역수지 ② 미국 8월 ADP 고용 변화 7월 제조업 수주 MoM 7월(최종) 내구재 주문 MoM ③ 미국 ISM 서비스업 지수 7월(최종) S&P 글로벌 제조업 PMI ④ 미국 8월 고용보고서(4일) 7월 비농업고용 -2.3만, 실업률 4.1%	22 마이크로 실적 ① 한국 8월 수출/입 YoY 8월 무역수지 ② 미국 8월 ADP 고용 변화 7월 제조업 수주 MoM 7월(최종) 내구재 주문 MoM ③ 미국 ISM 서비스업 지수 7월(최종) S&P 글로벌 제조업 PMI ④ 미국 8월 고용보고서(4일) 7월 비농업고용 -2.3만, 실업률 4.1%	23 메타 커넥트 2026 ① 한국 8월 수출/입 YoY 8월 무역수지 ② 미국 8월 ADP 고용 변화 7월 제조업 수주 MoM 7월(최종) 내구재 주문 MoM ③ 미국 ISM 서비스업 지수 7월(최종) S&P 글로벌 제조업 PMI ④ 미국 8월 고용보고서(4일) 7월 비농업고용 -2.3만, 실업률 4.1%	24 한국 추석 연휴 휴장(~25일) ① 한국 8월 수출/입 YoY 8월 무역수지 ② 미국 8월 ADP 고용 변화 7월 제조업 수주 MoM 7월(최종) 내구재 주문 MoM ③ 미국 ISM 서비스업 지수 7월(최종) S&P 글로벌 제조업 PMI ④ 미국 8월 고용보고서(4일) 7월 비농업고용 -2.3만, 실업률 4.1%	25 미국 미시간대 기대인플레이 ① 한국 8월 수출/입 YoY 8월 무역수지 ② 미국 8월 ADP 고용 변화 7월 제조업 수주 MoM 7월(최종) 내구재 주문 MoM ③ 미국 ISM 서비스업 지수 7월(최종) S&P 글로벌 제조업 PMI ④ 미국 8월 고용보고서(4일) 7월 비농업고용 -2.3만, 실업률 4.1%	26 BOJ 금융정책위원회 7월 회의에서 정책금리 1.0% 동결 결정(소수의견, 다카타 위원 25bp 인상). 연속 인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인상 기조임은 재확인. 한편 7월 말 미국과 일본의 엔화 시장 공조 개입으로 엔/달러 환율은 급격한 레벨 다운을 경험. 시장에서는 개입만으로 엔화 약세를 막기 어렵다는 평가와 함께 BOJ의 추가 인상 기대가 확대. 8월 중순 이후 일본 10년물 국채금리가 96년 이후 최고 수준 기록, 금리인상 확률은 80%까지 급등. BOJ가 매파적일 경우 엔화 쇼크지션 및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 제기
5주	27 미국 PCE 물가지수, 연방정부 예산 기한 ① 미국 9월 CB 소비자심리지수(29일) 8월 CB 소비자심리지수 미발표 ② 미국 8월 JOLTs 구인이직건수(29일) 7월 JOLTs 구인이직건수 미발표 ③ 미국 8월 PCE 물가지수(30일) 7월 PCE 물가지수 미발표 ④ 미국 연방정부 의회 예산 기한(30일) 예산 합의 실패 시 섰다문 리스크 부각 가능	28 대만 스승의 날 휴장 ① 한국 8월 수출/입 YoY 8월 무역수지 ② 미국 8월 ADP 고용 변화 7월 제조업 수주 MoM 7월(최종) 내구재 주문 MoM ③ 미국 ISM 서비스업 지수 7월(최종) S&P 글로벌 제조업 PMI ④ 미국 8월 고용보고서(4일) 7월 비농업고용 -2.3만, 실업률 4.1%	29 미국 JOLTs 구인이직건수 ① 한국 8월 수출/입 YoY 8월 무역수지 ② 미국 8월 ADP 고용 변화 7월 제조업 수주 MoM 7월(최종) 내구재 주문 MoM ③ 미국 ISM 서비스업 지수 7월(최종) S&P 글로벌 제조업 PMI ④ 미국 8월 고용보고서(4일) 7월 비농업고용 -2.3만, 실업률 4.1%	30 미국 PCE 물가지수 ① 한국 8월 수출/입 YoY 8월 무역수지 ② 미국 8월 ADP 고용 변화 7월 제조업 수주 MoM 7월(최종) 내구재 주문 MoM ③ 미국 ISM 서비스업 지수 7월(최종) S&P 글로벌 제조업 PMI ④ 미국 8월 고용보고서(4일) 7월 비농업고용 -2.3만, 실업률 4.1%	9월 주요 일정(1) 연준 베이저북 공개(2일) 독일 IFA 2026(4~8일) K-배터리쇼 2026(9~11일) ECB 통화정책회의(9~10일) 한국 선물·음선 동시만기일(10일) BRICS 정상회담(12~13일) 미국 FOMC(15~16일) 독일 IAA Transportation 2026(15~20일) BOE 통화정책회의(17일)	9월 주요 일정(2) BOJ 금융정책위원회(17~18일) 미국 선물·음선 동시만기일(18일) 메타 커넥트 2026(23~24일) UN 총회 일반토의(22~28일) 미국 2027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 기한(30일) 애플 폴더블 스마트폰 공개(9월 중) 국민성장펀드 2차 판매(9월 중) FTSE 러셀 반기 리뷰(9월 중)	10월 주요 일정 IMF/WB 연례 차제 회의(12~18일) 연준 베이저북 공개(14일) EU 정상회의(15~1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22일) 유럽중앙은행 ESMO(23~27일) FOMC(27~28일) ECB 통화정책회의(28~29일) BOJ 금융정책위원회(29~30일)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10월 중) 중국 정치국 회의(10월 중)

일자	지역	중요도	이벤트	내용
9/9 ~10	유로존	상	ECB 통화정책회의	7월 회의에서 3대 정책금리 동결 결정. 7월 회의 당시 라가르드 총재는 "분쟁 시작 이후 에너지 가격 상승과 식품·상품·서비스 물가 파급으로 2027년 상반기까지 물가상승률이 목표치를 상회할 것"이라며 매파적 경계감을 유지. 내부에서 몇몇 위원들의 금리 인상 의견도 출회되었으며, 라가르드 ECB 총재 역시 9월 금리인상 가능성을 열어둘 것이라고 밝힘. ECB는 6월 회의에서 중동 정세발 에너지 가격 상승 우려를 반영해 2023년 9월 이후 약 3년 만에 금리를 인상(25bp)한 바 있음. 7월 중 중동 전쟁이 재격화, 향후 중동 정세 전개 및 에너지 가격 흐름에 따라 금리 결정 내용이 바뀔 수 있어 유의 필요
9/10	한국	상	ECB 통화정책회의	3·6·9·12월 둘째 주 목요일에 도래하는 코스피200 선물·옵션 동시만기(네 마녀의 날). 2026년 9월에는 10일(목)이 해당. 만기일에 근접할수록 선물·옵션 포지션을 정산 과정에서 차익거래 청산 물량이 출회될 수 있어 단기 변동성에 유의. 특히 최근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던 코스피와 반도체 대형주 중심의 수급 변동 경계 필요
9/15 ~16	미국	상	FOMC	7월 FOMC에서 기준금리 5회 연속 동결 결정(3.50~3.75%). 2016년 9월 이후 처음으로 소수의견 3인(25bp 인상, 베스 해맥, 닐 카시카리, 로리 로건)이 기록되며 인플레이션 및 정책 판단에 상당한 이견이 존재했던 회의. 위시는 2% 물가 목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으나 추가 인상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시그널과 방법론을 제시하지 않음. 오히려 "채권금리 상승이 이미 금융 여건을 어느 정도 긴축시키고 있다"는 발언에 인플레이션 늦장 대응(Behind the curve) 우려가 유입되며 미 국내금리 장기물 위주로 상승 - 한편 7월 미국 고용은 시장의 증가 예상과 달리 큰 폭의 감소를 기록(실제: -23k/예상: 85k). 이전 두 달의 고용도 하향 조정. 이후 발표된 미국 7월 CPI yoy 3.4% 기록, 예상치(3.4%) 부합 및 이전치(3.5%) 하회. 근원 CPI yoy 2.5% 기록, 예상치(2.5%) 부합 및 이전치(2.6%) 하회. 미국 7월 PPI yoy +4.7% 기록, 예상치(+4.9%)·이전치(+5.5%) 하회. 물가지표가 안정적으로 발표되며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은 완화된 상황. 부진한 고용에 이어 미국 7월 소매판매가 mom -0.6% 기록, 예상치(+0.1%) 및 이전치(+0.2%) 하회하는 등 쇼크를 기록해 성장둔화(혹은 침체) 우려도 유입되는 상황. 금리와 관련해서는 8~9월 중 추가 발표되는 물가지표 및 고용지표를 유의할 필요
9/17 ~18	일본	상	BOJ 금융정책위원회	7월 회의에서 정책금리 1.0% 동결 결정. 소수의견 1인, 다카타 위원은 1.25% 인상을 주장. 6월 인상 이후 일단 연속 인상은 이루어지지 않음. "금리를 계속 인상해 완화 정도를 조정한다"는 문구는 유지해 여전히 인상 기조 하에 있음을 재확인. 성장전망에서 26년도 성장률을 0.6%, 27년도를 0.8%로 각각 +0.1%p 상향(AI 투자·정부 부양책 반영). 근원CPI는 26년도를 2.5%로 -0.3%p 낮췄으나 이는 전기·가스요금 지원 연장이라는 일시 요인이고, 보조금이 사라지는 27년도는 +2.4%로 오히려 상향. 기조 물가 판단은 매파적으로 이동한 것으로 해석 가능 - 추가 인상 영향 변수로 AI 관련 수요와 환율을 신규 제시. AI 투자가 소재·부품 수요를 예상 이상 늘리거나 엔 약세발 수입물가가 확산될 경우를 상방 요인으로 지목했고, 중동 공급망 리스크는 완화됐다고 평가. AI 수요를 인플레이션 변수로 공식 명시한 건 처음. 한편 7월 말~8월 초 미국과 일본의 엔화 시장 공조 개입으로 엔/달러 환율은 급격한 레벨 다운을 경험, 이후 점진적 되돌림을 보임. 시장에서는 외환 개입만으로 엔화 약세를 막기 어렵다는 평가와 함께 BOJ의 추가 금리인상 기대가 확대. 특히 8월 중순 이후에는 일본 10년물 국채금리가 1996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 스왑 시장에 반영된 일본 금리인상 확률은 80%까지 급등. 향후 BOJ가 매파적일 경우 엔화 숏포지션 및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도 제기
9/30	한국	상	2027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 기한	미국 연방정부 회계연도는 10월 1일 시작되며, 이 시한까지 세출법안(또는 임시예산, CR)이 처리되지 않으면 연방정부 셧다운 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음. FY2026에는 역대 최장인 43일간의 연방정부 셧다운과 이후 반복된 부분 셧다운(DHS 장기 셧다운 포함)이 발생한 바 있음. FY2027 예산 협상 과정에서도 셧다운 관련 정치적 불확실성 및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 셧다운 발생 여부 및 발생 기간은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이르며 9월 협상 추이 확인 필요